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예배로의 초대 Invitation		인도자
신앙고백 Confession		다같이
찬양과 경배 Worship		다같이
기도 Prayer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		인도자
말씀 Sermon	예수가 흥하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3:22-30	곽형일 목사
결단의 시간 Dedication		다같이
축복기도 Benediction		임종길 목사



3부: 오후 1:30		
예배로의 초대 Invitation		인도자
찬양과 경배 Worship		다같이
기도 Prayer		다같이
축복기도 Benediction		곽형일 목사

- 새 예배당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10015 Main St. Fairfax, VA, 22031
1) 교회측의 오피대로 받아들여 지기를
2) 교회 퍼밋이 신속히 나올 수 있도록
3) 가적의 영광이 있기를 (예배당 구매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일하심을 위해)
- 다음 주말, 최성조 장로/에스티 전도사의 차녀 최인아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은 축하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 3부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어 성령의 바람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에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 지난주 2주 헌금 (Last Week's Offerings)

주정 헌금	1298	선교 헌금	220
십일조	2491	건축 헌금	80
감사헌금	520	멕시코 바수론	2202
			총액
			6,811

- 언제 어디에 서있을 것인가?
-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자인가?
- 나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 쉼 그룹 나눔 주제 Questions for Cell Group Sharing

-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자랑을 하는 사람입니까?
- 예수님을 위해서는 가까이 자신이 헌신하던 자리를 떠나도 괜찮겠습니까?
- 예수님을 전하느라 손해를 감수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나에게 좋지 않은 일임에도 예수님이 전해진 것으로 인해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 한 영혼을 신부로 만들어주기 위해 예수님의 친구의 자리에 서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 예배 및 모임 안내 (Services and Meetings)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화-금 새벽기도 (온라인)	오전 5:30
주일 2부 예배	오후 11:00	토요새벽기도	오전 6: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YM, EM	오전 11:00
수요 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토요 여성 성경공부	오전 9:00	새가족 성경공부 (주일)	오전 10:00

● 후원선교사 (Supporting Missionaries)

Missionary	Country	Missionary	Country
고동훈/김흥희	Israel	김성화/진옥경	Dominica Republic
성명구/황은주	Mexico	장순희	Nepal
정은희	South Sudan	성화영	Sri Lanka
김광호	NK Church	강태호	Japan
나운주	Washington DC	이흥구	California

● 풍선신앙

너 그러다 터지면
높이 올라갈수록
크게 떨어진다야



● 풍선신앙을 버리라

원래의 자신보다 커보이게 하려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잡아 먹히지 않으려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일 때도 있지만 자신을 좀더 근사하게 보여 짹짹기를 하려는 구애행동일 때가 많습니다.

1. 눈감고 듣기만 해

일단 겉모양은 변함이 없지만 소리만 그럴싸하게 내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붉은 사슴과 코알라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은 덩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목소리도 그렇게 두텁지 않습니다. 그러나 짹짹기 철이 되면 숫사슴과 수코알라는 갑자기 통베이스 소리를 냅니다. 자신을 좀더 커보이게 하는 것이 아닌 좀더 '커들리게(?)' 위장을 하는 것이지요.

2. 니코 니코니?

코끼리 물개는 코만 엄청 부풀릴 수 있는 특별한 장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의 코는 공기를 들이 마시고 내 실 뿐 아니라 코 자체에 바람을 넣을 수 있습니다. 풍선에 바람을 넣듯 코에 바람을 넣어서 코를 무려 30 센티미터 가까이 크게 합니다. 이들은 덩치가 크므로 사실 코만 30 센티미터 정도 길어진다고 해서 전체 크기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더 멋져 보이도록 위장하는 것이지요.

3. 잠을 떤면 잡아봐

두꺼비 역시 자신의 몸에 공기를 불어 넣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공기를 주입하여 더 크게 보이게 함으로써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고 짹짹하게 구애를 하기도 합니다. 두꺼비의 특별한 점은 숫컷이 아닌 암컷도 몸에 바람을 넣곤 한다는 것입니다. 숫컷들이 짹짹 유혹하기 위해 몸을 부풀리는 반면, 암두꺼비는 그 반대의 이유로 몸을 부풀립니다. 자기 맘에 안드는 애가 알짹거리면 몸을 확 부풀려서 뒤에서 자신을 잡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것이지요. 온몸을 이용한 절대적인 거부라고 할까요.

자연세계에는 이처럼 자신의 원래 모습보다 크게 보이려는 시도를 하는 생물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한 동물 중에 인간이 포함되어 있지요. 물론 인간이 자기 몸의 일부를 바람을 넣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을 더 근사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위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명품으로 치장을 하기도 하고, 더 좋은 학벌로, 더 좋은 직업으로, 더 좋은 집과 차로, 좀더 윤택적이고, 좀더 교양있는 인간인 듯, 자신을 원래 자신보다 있어 보이게 위장을 합니다. 자신이 죄로 인하여 멸망해가는 짐승과 다들 바가 없는 존재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어차피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안타까운 존재임을 애써 외면한 채, 한정된 시간동안 조금이라도 커보이려 헛바람을 넣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도 좀더 거룩해 보이고, 좀더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좀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바람을 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람들어간 외형에 속곤 하지요. 위장이라는 것은 속이는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자신의 신앙에 바람을 집어넣는 목적 자체가 속이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위장으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위해 한 없이 낮아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자신은 쇠해야 하리라 고백하며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자리를 내어 줍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모습입니다.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교회



생명샘교회
Living Spring Church



2024 표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Behold, I will do a new thing; now it shall spring forth
이사야 (Isaiah 43:19)

EM: Mark Lee 목사 / 장애우사역: 박경숙 전도사
Youth: Isaac & Martin Lin
제자훈련: 허용범 전도사 / 상담: 전에스티 전도사
아동부: 민경은 사모 / 유년부: 배민희 전도사
영아부: 배미자 권사 / 원로: 임종길 목사

담임: 곽형일 목사

7200 Ox Rd, Fairfax Station, VA 22039
T. 571.839.3058
LivingSpringVirginia@gmail.com
www.LivingSpring.net